

《易經》의 “人謀鬼謀”에 관한 고찰*

金學權**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易經》의 “鬼謀”에 관한 고찰
 - 2.1 天帝信仰을 통한 設敎
 - 2.2 鬼神崇拜를 통한 設敎
3. 《易經》의 “人謀”에 관한 고찰
 - 3.1 修己의 德性의 重視
 - 3.2 經世의 王道의 重視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우리의 일상적 삶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해결해가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류의 경험과 지식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신봉했던 天帝의 도움을 받아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먼저 天帝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天帝와의 疏通의 방법이 추구되면서 많은 占法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거북이 껍데기(혹은 獸骨)를 불에 구워 거기에 나타난 균열의 象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卜占과 蓍草의 줄기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셈하여 卦爻를 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길흉을 점치는 筮占의 占法

* 이 논문은 2009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圓光大學校 人文大學 哲學科 敎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봉되어 가장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左傳》에서도 “거북점(卜占)은 그 象을 살펴 점치는 것이고, 筮占(蓍草占)은 그 數를 셈하여 점치는 것”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卜筮는 天帝(神)의 도움을 받아 人事를 해결하기 위한 天帝와의 소통수단으로, 오랜 세월동안 널리 행해진 고대 중국의 占法이었다.

그런데 卜筮는 사실 그 형식과 내용상에 있어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占法이었다. 漢代의 鄭玄은 《周禮》의 註釋에서 “《易》이란 蓍草를 셈하여 얻은 변화의 數를 가지고 점치는 것”²⁾이라고 하였고, 許慎은 《說文解字》에서 “筮”자를 설명하며 “易卦는 蓍草를 사용하는 것”³⁾이라고 말하였다. 《周易》, 즉 《易經》은 蓍草의 數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셈하여 그 길흉을 점치는 筮占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 내용이 문자로 기록되고 정리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周易》은 卜法과는 다른 筮法을 통해 형성된 것이었지만 《周易》이 흥기한 殷末 周初에 여전히 卜筮가 함께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殷代 占卜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으므로 《周易》의 내용에는 天帝를 숭배하고 鬼神을 신봉하며, 祭祀를 높이 받드는 이전의 전통신앙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⁴⁾ 그러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한 격동의 시기를 극복하면서 형성된 《周易》의 대부분의 내용은 “天命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⁵⁾, “하늘의 聰明은 백성들의 聰明을 통해 나타난다.”⁶⁾는 등의 人文精神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周易》의 내용에는 殷商시대 “鬼謀”의 전통신앙의 의식이 일부 표현되고 있지만 그 보다는 周代의 새로운 “人謀”의 人文精神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周易》<繫辭下傳>에서 “天地가 위치를 정하니 聖人이 能함을 이룬다. 사람

1) 十三經注疏 6 《左傳·僖公十五年》(臺北：藝文印書館印行) 234쪽：龜，象也。筮，數也。

2) 十三經注疏 3 《周禮·春官宗伯·大卜》(臺北：藝文印書館印行) 370쪽(鄭玄의 注)：易者，揲著變易之數可占者也。

3) 漢·許慎，清·段玉裁 撰，《說文解字注》(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民國 72) 191쪽：筮，易卦用蓍也。

4) 十三經注疏 1 《尚書·周書·洪範》(臺北：藝文印書館印行) 174쪽：箕子說，七稽疑，擇建立卜筮人，乃命卜筮。

5) 十三經注疏 2 《詩經·大雅·文王之什》(臺北：藝文印書館印行) 536쪽：天命靡常。

6) 十三經注疏 1 《尚書·皋陶謨》(臺北：藝文印書館印行) 63쪽：天聰明自我民聰明。

에게 도모하고 귀신에게 도모함으로써 백성도 능함에 참여한다.”⁷⁾고 말하고 있다.

《易經》은 고대 중국인들이 天帝에게 제기한 물음에 대한 天帝(神)의 응답이 아니라 고대 중국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하나로 결집된 지혜의 寶庫인 것이다. 그런데 《易經》의 내용이 난해하여 쉽게 알 수 없었으므로 《易經》의 내용을 설명하는 여러 《易傳》이 출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孔子가 지었다는 《易傳》, 즉 《十翼》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원래의 《周易》인 《易經》과 이 《易經》을 해설하고 있는 《易傳》, 즉 《十翼》을 하나로 합본하여 《周易》이란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언제부터 이 《易經》과 《易傳》을 하나로 합본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지만 대체적으로 漢代 이후부터 그렇게 사용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통용본 《周易》 가운데 64卦의 卦象과 卦名, 卦辭와 爻辭가 본래의 《周易》, 즉 《易經》에 해당된다. 따라서 《易經》의 “人謀·鬼謀”에 대한 고찰은 결국 《周易》의 卦爻辭 가운데 담겨있는 “人謀·鬼謀”에 대한 고찰이다. 《周易》의 觀卦 <彖傳>에서는 “聖인이 (하늘의) 神道로 가르침을 펴니 天下(萬民)이 복종한다.”⁸⁾고 말하고 있다. 귀신에게 도모하는 “鬼謀” 역시 가르침을 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형태를 달리하는 “人謀”에 불과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周易》의 卦爻辭에 나타난 “人謀·鬼謀”에 대한 고찰을 통해 《周易》에 담겨있는 周代의 인문정신은 어떠한 것이며, 또한 《周易》의 인문정신이 이후 중국사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7) 《周易》<繫辭傳>下 12章：天地設位，聖人成能，人謀鬼謀，百姓與能。

8) 《周易》觀卦 <彖傳>：觀天之神道而四時不忒，聖人以神道設教而天下服矣。

2. 《易經》의 “鬼謀”에 관한 고찰

周代の 占卜 역시 일정부분 殷代 占卜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周代의 占書인 《易經》의 卦爻辭 가운데에는 “鬼謀”와 관련된 天帝信仰과 鬼神숭배의 의식이 일부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2.1 天帝신앙을 통한 設敎

《易經》 가운데 天帝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卦爻辭는 “하늘(天帝)로부터 도움을 얻으니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⁹⁾는 大有卦 上九爻辭의 내용이다. 傅隸朴은 이 大有卦 上九爻辭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上九爻는 ‘믿음으로 서로 사귀며 신의로써 뜻을 계발하는’ 六五爻를 아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신의를 지키는 덕을 갖추고 있다. 또한 陽剛으로 유순한 음위에 처하여 능히 순응할 수 있는 상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아래의 네 陽爻들이 다투어 六五爻와 가까이하려고 함과 달리 六五爻의 밖에 홀로 처하여 세상 사람들과 부귀영화를 다투지 않는 고상한 뜻을 지니고 있다. 上九爻는 이미 이러한 三德을 갖추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하늘의 도움을 얻게 되어 나아감에 이롭지 않음이 없다. 그러기에 ‘하늘로부터 도움을 얻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한 爻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夬卦를 가지고 말한다면 初爻가 대부분 한 卦의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있듯이 上九爻는 대부분 한 卦의 결론을 맺고 있다. 본 大有卦의 初九爻辭는 ‘어렵지만 조심하면 허물이 없음’이고, 九二爻辭는 ‘큰 수레로 실음’이며, 九三爻辭는 ‘천자에게 물건을 올림’이고, 九四爻辭는 ‘지나치게 성하게 하지 않음’이며, 六五爻辭는 더욱 ‘위엄이 있으면 길함’이

9) 《周易》 大有卦 上九爻辭：自天祐之，吉无不利.

라고 하였으니, 大有의 세상에 처하여 이 五德을 갖추었으니 스스로의 도움과 타인의 도움을 이미 다 얻게 된 것이다. 사람의 도움을 다 얻게 되었으니 어찌 하늘의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되겠는가? 그러기에 上九爻辭에 이르러 ‘하늘로부터 도움을 얻으니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말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大有卦 전체의 결론인 것이다.”¹⁰⁾라고 하였다. 이 大有卦 上九爻辭는 天帝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자지 자신의 德과 충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益卦의 六二爻辭인 “왕이 하늘(天帝)에 제사지내니 길하다”¹¹⁾에도 天帝신앙의 의식이 드러나 있다. 이것은 帝王이 교외에 나가 天帝에게 제물을 바치며 제사지내는 郊祭를 두고 하는 말로, ‘天子가 교외에 나가 天帝에게 제사지내니 길하다’는 뜻이다. 또한 隨卦 上六爻辭에서 “왕이 西山에 제사지내다”¹²⁾라고 말하고, 升卦 六四爻辭에서 “왕이 岐山에 제사지내다.”¹³⁾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周文王이 백성들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岐山에 제사지낸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처럼 文王이 岐山(西山)에 제사지낸 것은 널리 비를 뿌려 만물을 무성케 하여 천하 만민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恩澤을 베푸는 天帝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표현인 것이다. 이 내용 역시 “鬼謀”의 형식을 빌어 백성의 안녕과 번영을 꾀하고자 하는 인문정신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0) 傅隸朴, 《周易理解》(成都: 巴蜀書社, 1991) 124쪽: 上九下履六五, 六五是厥孚交如, 信以發志의, 故上九具備了履信之德. 上九以陽剛而處柔順之位, 是能思順之象. 下四陽爭附於五, 已獨處於五外, 是與世無爭, 高尚其志의 表現. 上九既具備了此三德, 自能獲得天祐, 無往不吉了, 故曰自天祐之, 吉無不利. 這是就一爻而言, 但就全卦言, 上九多半是作一卦의 結論, 正如初爻多半是釋一卦의 基本原則一樣, 本卦의 初九是艱則無咎, 九二是大車以載, 九三是亨於天子, 九四是匪其彭, 均是无咎의. 而六五更是威如吉, 處大有之世, 能具備此五德, 可以說是自助助人助都已盡了. 自助助人助已盡, 尙有不獲天助의 嗎? 故到了上九, 便是自天祐之, 吉無不利了. 這是全卦의 結論.

11) 《周易》 益卦 六二爻辭: 王用享於帝, 吉.

12) 《周易》 隨卦 上六爻辭: 王用亨於西山.

13) 《周易》 升卦 六四爻辭: 王用亨於岐山.

2.2 鬼神崇拜을 통한 設敎

《易經》 가운데 鬼神崇拜의 의식이 반영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돼지가 진흙을 지고 있음과 귀신이 한 수레 가득 실려 있음을 본다.”¹⁴⁾는 睽卦 上九爻辭를 들 수 있다. 이것은 睽卦의 上九爻가 아래의 六三爻와 正應의 관계를 이루지만 中間의 九四爻와 六五爻의 방해를 받고, 어그러짐(睽)의 極에 처하여 의심이 크기 때문에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六三爻를 온몸에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는 돼지와 귀신이 한 수레 가득 실려 있는 것과 같이 보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다. 상호간에 생각이 괴리되어 의심하게 되면 평소 좋아했던 사람도 더럽게 보이게 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귀신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이 睽卦 上九爻辭의 내용은 귀신을 숭상했던 당시 세속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본지는 의심에 의한 착각을 표현한 것이다. 《禮記·祭義》에서 공자는 “氣라고 하는 것은 神의 충만함이고, 魄이라고 하는 것은 鬼의 충만함이며, 鬼와 神을 하나로 합하는 것은 가르침의 극치이다. 생명을 가진 사물은 반드시 죽게 되고, 죽은 후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鬼이다. 骨肉은 지하에서 썩어 변하여 野土가 되지만 그 氣는 위로 發揚하여 밝고 활발하게 움직이며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생물의 精靈으로, 눈에 보이는 神인 것이다.”¹⁵⁾라고 하였다. 許慎은 《說文解字》에서 “사람이 죽어 돌아가 鬼가 된다.”¹⁶⁾고 하였으며, 또한 “鬼”자의 註釋에서 “鬼란 말은 돌아감¹⁷⁾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옛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鬼, 즉 鬼神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鬼神은 일정기간 우리 주위를 맴돌며

14) 《周易》 睽卦 上九爻辭：見豕負塗，載鬼一車。

15) 十三經注疏 5 《禮記·祭義》(臺北：藝文印書館印行) 813-814쪽：宰我曰 吾聞鬼神之名，而不知其所謂。子曰 氣也者，神之盛也，魄也者，鬼之盛也。合鬼與神，教之至也。衆生必死，死必歸土，此之謂鬼。骨肉斃於下，陰爲野土。其氣發揚於上，爲昭明焜蒿悽愴，此百物之精也，神之著也。(王夢鷗 註譯，《禮記今註今譯》下，757쪽.)

16) 漢·許慎，清·段玉裁 撰，《說文解字注》(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民國 72) 434쪽：鬼，人所歸爲鬼。

17) 漢·許慎，清·段玉裁 撰，《說文解字注》(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民國 72) 434쪽：鬼之爲言，歸也。

우리와 함께 한다고 여긴 것이다. 선조들의 죽음 역시 그들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상당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의 삶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시한 것이다.

조상숭배의 의식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는萃卦 卦辭인 “왕이 廟堂에 이른 것이니, 大人을 봄에 이롭고 형통하며, 바르게 함이 이롭다.”¹⁸⁾와 渙卦 卦辭인 “왕이 廟堂에 이르니, 大川을 건넌에 이롭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¹⁹⁾ 등을 들 수 있다. 許慎은 《說文解字》에서 “廟堂은 先祖를 받드는 사당이다.”²⁰⁾라고 설명하였고, 그 註釋에서 “옛 사람들은 廟堂에서 先祖에 제사지냈다.”²¹⁾라고 하였다.萃卦의 卦辭에서 “왕이 廟堂에 이른 것”은 廟堂에서 조상에게 제사지내기 위한 것이다. 고대의 帝王과 諸侯들은 국가에 大事가 있을 때 廟堂에 가서 先祖에게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의 결정이 先祖들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생각을 통일시켜 그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 고대에 帝王이 천하 만민을 一致團結토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상을 모신 廟堂에 가서 조상에게 廟祭를 지내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백성을 모으는萃卦의 卦辭에 “왕이 廟堂에 이른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渙卦의 卦辭에서 “왕이 廟堂에 이른 것” 역시 帝王이 宗廟에 나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백성들의 국가의식을 환기시켜 渙散된 민심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백성의 응집력을 강화하여 당면한 難局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渙卦 卦辭에 “왕이 廟堂에 이르니, 大川을 건넌에 이롭다.”고 말한 것이다. 이처럼 帝王이 宗廟에서 先祖에게 드리는 祭祀 역시 祖上神의 도움을 받아 國泰民安을 이루고자 하는 인문정신의 반영인 것이다.

祭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困卦 역시 마찬가지다. 困卦 九二爻辭에서는 “제사를 드림이 이롭고, 가면 흉하나 허물은 없다.”²²⁾라고 하였고, 九五爻辭에서

18) 《周易》萃卦 卦辭：王假有廟，利見大人，亨，利貞。

19) 《周易》渙卦 卦辭：王假有廟，利涉大川，利貞。

20) 漢·許慎，清·段玉裁 撰，《說文解字注》(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民國 72) 446쪽：廟，尊先祖也。

21) 漢·許慎，清·段玉裁 撰，《說文解字注》(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民國 72) 446쪽：古者，廟以祀先祖。

는 “제사지냄이 이롭다.”²³⁾라고 하였다. 困卦는 初六·六三·上六의 3陰爻와 九二·九四·九五의 3陽爻로 이루어진 坎下兌上의 괘이다. 일반적으로 陽爻는 君子를 상징하고, 陰爻는 小人을 상징한다. 困卦 九二爻는 陽剛으로 得中하여 九五와 같은 德을 지녔지만 六三爻의 小人和 九四爻의 견제를 받으며 아래의 곤궁한 陰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 도움을 얻으려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행동을 취하게 되면 흉할 것이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허물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림이 이롭고, 가면 흉하나 허물은 없다.”고 말한 것이다. 九五爻 또한 中正의 덕을 지니고 君位에 자리한 君子이지만 주위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지 못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 神明의 도움을 구해 이 곤궁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또한 《易經》에는 宗廟에서 드리는 禴祭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 萃卦 六二爻辭의 “믿음(孚)이 있으니 간단하고 소박하게 제사지냄(禴)이 이롭다.”²⁴⁾, 升卦 九二爻辭의 “믿음(孚)이 있으니 간단하고 소박하게 제사지냄(禴)이 이롭고, 허물이 없다.”²⁵⁾, 그리고 既濟卦 九五爻辭의 “동쪽 이웃에서 소를 잡아 성대하게 제사지냄이 서쪽 이웃에서 간단하고 소박하게 제사지냄(禴) 실로 그 복을 받는 것만 못하다.”²⁶⁾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 程頤는 그의 《程傳》에서 萃卦 六二爻辭를 설명하면서 “孚는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니 정성을 일컫는 말이고, 禴은 간단하고 소박하게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²⁷⁾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인용된 卦爻辭에도 자신이 먼저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 조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祭祀)이며, 祭祀를 지냄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참된 마음(孚)과 겸소함이 중요하다는 인문정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22) 《周易》 困卦 九二爻辭：利用享祀，征凶，无咎。

23) 《周易》 困卦 九五爻辭：利用祭祀。

24) 《周易》 萃卦 六二爻辭：孚乃利用禴。

25) 《周易》 升卦 九二爻辭：孚乃利用禴，无咎。

26) 《周易》 既濟卦 九五爻辭：東隣殺牛，不如西隣之禴祭，實受其福。

27) 成百曉譯註，《周易傳義》下(서울：傳統文化研究會，1999) 237쪽. 萃卦 六二爻辭에 대한 程頤의 注：孚，信之在中，誠之謂也。禴，祭之簡薄者也。

3. 《易經》의 “人謀”에 관한 고찰

《易經》의 卦爻辭 가운데에는 天帝信仰과 鬼神崇拜 의식의 표현보다는 스스로의 省察과 自覺을 통한 德性的 함양과 실천을 중시하는 내용이 훨씬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종래의 전통적 신앙의식에서 한걸음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1 修己의 德性的 重視

《易經》의 卦爻辭 가운데 “勤勉”, “敬懼”, “謹慎”, “謙卑”, “節制”, “恒德” 등의 德性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勤勉”의 德性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君子는 종일토록 힘쓰고 힘쓰며, 저녁까지도 두려워하니, 위태로워도 허물이 없다.”²⁸⁾는 乾卦 九三爻辭일 것이다. 이것은 부지런히 힘써 일하되 때에 맞춰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다. ‘종일토록 힘쓰고 힘쓰며(終日乾乾)’는 하루 종일토록 쉬지 않고 삼가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계속 힘써 나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며, ‘저녁까지도 두려워 함(夕惕若)’이란 설사 저녁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삼가 조심하며 두려워하는 태도를 견지함을 말한다. ‘若’은 아무 뜻이 없는 어조사이며, ‘위태로움(厲)’이란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 乾卦 九三爻는 下卦의 上位에 자리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위태로운, 즉 凶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원래는 허물이 있게 되지만 剛健하고 올바른 德을 지니고 終日토록 힘쓰고 힘쓰며, 저녁까지도 삼가 조심하면서 두려워하

28) 《周易》 乾卦 九三爻辭：君子終日乾乾，夕惕若，厲，无咎。

기 때문에 허물이 있게 되는 상황을 허물이 없게 되는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²⁹⁾ 乾卦 九三爻辭는 태만하지 않고 힘써 일하며 때에 맞춰 노력하게 되면 설사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를 평안한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됨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기에 乾卦 <文言傳>에서 “힘쓰고 힘쓰며 때에 따라 삼가 조심하며 두려워하면 비록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허물이 없게 된다.”³⁰⁾고 말한 것이다.

“敬懼”의 德性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需卦 上六爻辭인 “구멍에 들어감이라. 부르지 않은 손님 세 사람이 올 것이니, 이들을 공경하면 마침내 길할 것이다.”³¹⁾를 들 수 있다. 이것은 需卦 上六爻가 이미 坎險의 극단에 이르러 더 이상 물러나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움직일 수 없으므로 ‘구멍에 들어감(入於穴)’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때 ‘초대하지 않는 세 사람의 손님이 온다(不速之客三人來)’는 것은 아래에 있는 세 개의 陽爻를 지칭하는 것으로 上六爻에 위협을 가하는 대상이다. 이럴 때에 上六爻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上六爻는 陰爻이면서 또한 위협의 終極에 처하고 있으므로 단지 ‘공경하는(敬之)’ 방법을 취하여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초대하지 않는 세 사람의 손님에게 ‘공경함(敬之)’이란 굴욕을 참고 애써 양보하며, 공경하게 대함으로써 그들과 다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할 때에 需卦 上六爻는 비로소 위험한 상황을 평온한 상황으로 전환시키며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³²⁾ 履卦 九四爻辭인 “호랑이 꼬리를 밟았으나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니 마침내 길하다.” 역시 敬懼의 德을 강조하

29) 金景芳·呂紹綱著, 《周易全解》(吉林: 吉林大學出版社, 1989) 6쪽: ‘終日乾乾’, 終日戒慎恐懼, 自強不息. ‘夕惕若’, 即使到了晚上, 還是心懷憂惕, 不敢有一點的松懈. 若, 語辭. 厲, 危厲. 九三在下卦之上, 是多凶的危厲之地, 本來要有過咎, 由於它剛健得正, 能够終日乾乾, 夕惕若’, 有咎可以轉變為无咎.” 這表明勤勉不倦, 因時而動則加轉危為安.

30) 《周易》 乾卦 <文言傳> 九三爻: 故乾乾因其時而惕, 雖危无咎矣.

31) 《周易》 需卦 上六爻辭: 入於穴, 有不速之客三人來, 敬之終吉.

32) 金景芳·呂紹綱著, 《周易全解》(吉林: 吉林大學出版社, 1989) 76-77쪽: 上六已至坎險之極端, 無處可退避, 只能處於險境不動, 即‘入於穴’, 這時有三位未召而來的客人(即下三陽), 對上六構成威脅. 上六怎樣對待呢? 上六是陰爻且處險之終, 它只有採取敬之的辦法擺脫險境. ‘敬之’對三位不速之客, 含辱, 忍讓, 敬而待之, 不與之爭. 上六唯有如此, 方可化險為夷, 從困境中走出.

고 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함(愬愬)’이란 위태로워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履卦 九四爻는 九五爻의 아래에 자리하고 있고, 九五爻는 剛健하고 결단력을 갖춘 君主이다. 그런데 九四爻는 陽爻로 陽爻를 받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치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九四爻가 陽爻로 剛健한 기질을 지니고 있지만 四爻位는 乾卦의 下位로 陰柔한 爻位에 居하고 있으므로 능히 스스로 자신을 낮춰 부드럽게 행하고, 두려워할 줄을 알아 능히 스스로를 낮추어 부드럽게 응할 줄을 안다. 이처럼 삼가 경계하고 두려워하면서 나가면 勢가 비록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마침내 반드시 잘 해결될 것이다.³³⁾ 이 두 효사는 모두 敬懼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吉凶悔吝 모두 자신의 德行과 직접 관계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謹慎”의 德性에 관한 언급은 “혹 뛰어 오르거나 연못에 있음이니 허물이 없다.”³⁴⁾는 乾卦 九四爻辭에 잘 나타나 있다. 乾卦 九四爻는 君位인 九五爻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바, 이는 매우 두려운 위치이다. 九四爻는 陽爻로 陰位에 居하고 있으므로 더욱 더 조심하고 謹慎하며 輕舉妄動해서는 안된다. 때가 나갈 수 있을 때에 나가고, 나갈 수 없을 때에는 물러나며, 나가고 물러남을 때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그러기에 龍이 혹은 뛰어오르기도 하고, 연못에 있기도 하는 象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³⁵⁾ 坤卦 六四爻辭인 “주머니의 주둥이를 묶음이니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³⁶⁾ 역시 謹慎의 德에 관한 언급이다. 즉 주머니의 주둥이를 묶어 주머니 안에 있는 물건이 모두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듯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惡도 범하지 않고, 선도 행하지 않음으로써 善惡一切가

33) 傅隸朴, 《周易理解》(成都: 巴蜀書社, 1991) 97-98쪽: ‘愬愬’是危懼之貌, 九四緊在九五之下, 九五是剛而決斷的君主, 九四以陽承陽, 有如躡着虎尾, 是相當危險的, 但九雖質剛, 而四則居乾卦之下, 而爲陰柔之位, 是能以卑柔自處之征, 知懼而能卑柔, 在戒慎恐懼之下, 勢雖危, 終必獲涼解之吉.

34) 《周易》 乾卦 九四爻辭: 或躍在淵, 无咎.

35) 金景芳·呂紹綱著, 《周易全解》(吉林: 吉林大學出版社, 1989) 6쪽: 四迫近君位五, 是多懼之地, 九是陽爻而居陰位, 尤須小心謹慎, 不可輕舉妄動, 時可進則進, 時不可進則退, 進退依時而定, 故有龍或躍或在淵之象.”

36) 《周易》 坤卦 六四爻辭: 括囊, 无咎无譽.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머니의 주둥이를 묶음(括囊)’의 실질은 謹慎이며,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음(无咎无譽)’의 실질은 해가 없음(不害)을 말하는 것이다.³⁷⁾ 小畜卦 初九爻辭인 “돌아오미 道로 말미암은 것이니 어찌 허물이 있겠는가? 吉할 뿐이다.”³⁸⁾ 역시 謹慎의 德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小畜卦 初九爻는 陽爻로서 陽位에 거하고 있지만 가장 낮은 지위에 있어 陰爻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스스로 조급하고 무모하게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래에 잠복하여 그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다. 初九爻가 이처럼 신중하게 일을 행하는데 어찌 잘못을 범하겠는가?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吉하게 되는 것이다.³⁹⁾ 이상의 세 爻辭 모두 行事に 있어 謹慎의 德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謙卑”의 德性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謙卦의 卦爻辭이다. 謙卦의 卦爻辭는 모두가 吉利하다. 즉 謙卦 卦辭는 “謙은 형통하니, 君子가 (좋은) 끝마침이 있으리라(謙亨, 君子有終).”이고, 初九爻辭는 “겸손하고 겸손한 君子이니 大川을 건넌이 이롭다(謙謙君子, 用涉大川, 吉).”이며, 六二爻辭는 “겸손함이 알려짐이니, 貞하고 吉하다(鳴謙, 貞吉).”이고, 九三爻辭는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함이니 君子가 (좋은) 끝마침이 있어 吉하다(勞謙, 君子有終, 吉)”이며, 六四爻辭는 “이롭지 않음이 없으니 겸손을 발휘함이다.(无不利, 撝謙).”이고, 六五爻辭는 “부유하지 않으면서 그 이웃을 얻으니 侵伐함이 이롭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不富以其隣, 利用侵伐, 无不利).”이며, 上六爻辭는 “겸손함이 알려짐이, 군대를 출동하여 邑國을 정벌함이 이롭다(鳴謙, 利用行師, 征邑國).”이다. 六十四卦 가운데 卦爻辭 모두 吉利하다고 한 것은 이 謙卦 뿐이다. 謙卦의 卦爻辭를 통해 우리는 《易經》이 謙遜의 德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37) 金景芳·呂紹綱著, 《周易全解》(吉林: 吉林大學出版社, 1989) 49쪽: 繫上囊口, 裡面的東西, 全使不出來. 含晦緘默, 惡不爲, 善也不爲, 善惡一概括而不形. … ‘括囊’的實質是謹慎, ‘无咎无譽’的實質是不害.

38) 《周易》小畜卦 初九爻辭: 復自道, 何其咎, 吉.

39) 金景芳·呂紹綱著, 《周易全解》(吉林: 吉林大學出版社, 1989) 97쪽: 初九以陽居陽, 位居最下, 爲陰所畜, 今自知不宜急躁冒進, 乃潛伏於下, 復其本位. 初九如此慎重行事, 哪里還會有怎麼過錯呢? 沒有過錯便是吉.

를 알 수 있게 된다.

“節制”의 德性에 관한 것은 節卦 六四爻辭인 “평안히 행하는 節制이니 형통하다”⁴⁰⁾와 九五爻辭인 “감미로운 節制이니吉하다. 나아감에 嘉尙한 일이 있으리라.”⁴¹⁾라고 말한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이상에서 인용된 卦爻辭를 통해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易經》이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는 것은 修己의 德性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은 하늘의 德性을 갖춘 자에게만 天命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天命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天命靡常”의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周代 인문정신의 적극적 표명이었다.

3.2 經世的 王道의 重視

《易經》에서는 “寬大和同” “誠信惠人” “憂患處事” 등의 經世的 王道 역시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寬大和同”의 治道에 관한 언급은 泰卦 初九爻辭와 다음의 否卦 初六爻辭에 함께 쓰이고 있는 “엉켜있는 띠풀의 뿌리를 뽑는 것과 같으니, 同類들과 함께 하면 나아감이 길하다.”⁴²⁾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다. 이는 띠풀의 뿌리가 엉켜 있는 모습을 泰卦 初九爻의 爻象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泰卦 初九爻는 陽剛의 爻로 가장 낮은 자리에 處하고 있지만 때마침 천지의 기운이 왕성하게 교감하는 太平盛世를 맞이하고 있으니 반드시 위로 나가야 할 상황이다. 비단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同類, 즉 同志인 九二爻 九三爻와 연대하여 함께 위로 나가야 한다. 君子는 엉켜있는 띠풀의 뿌리를 뽑는 것과 같이 자신만이 아니라 同類인 同志들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吉하게 된다는 것이다.⁴³⁾ 同人卦 卦辭인 “사람과 함께 하되 들에서 함이니 형통하고, 大川을 건넌

40) 《周易》 節卦 六四爻辭 : 安節, 亨.

41) 《周易》 節卦 九五爻辭 : 甘節, 吉. 往有尙.

42) 《周易》 泰卦 初九爻辭 : 拔茅茹, 以其彙, 征吉.

이 이로우니 君子의 貞함이 이롭다.”⁴⁴⁾ 역시 “寬大和同”의 治道를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野’는 曠野를 일컫는 말로 나라 밖의 먼 곳을 뜻한다. 고대 국가에서는 나라의 중심지역을 ‘國’이라 불렀고, 나라의 밖을 ‘郊’라 불렀으며, ‘郊’의 밖을 ‘野’라고 불렀다. 즉 ‘野’란 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의 지역을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사람들과 함께 하되 들에서 함(同人於野)”이란 사람들과 함께하는 국면이 넓고, 크고, 멀리까지 미쳐 천하 사람들과 함께 함을 뜻하는 말이다.⁴⁵⁾ 또한 同人卦 六二爻辭인 “사람들과 함께 하되 宗黨과 함이니 촘하다.”⁴⁶⁾에도 “寬大和同”의 治道가 잘 나타나 있다.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범위가 자신의 宗黨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촘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兌卦의 初九爻辭 또한 “화합하여 기뻐함이니 길하다.”⁴⁷⁾라고 말한다. 兌卦의 初九爻는 陽爻로 기쁨의 體(兌)에居하고 있지만 가장 아래 자리에 處해 있고, 또한 응하는 세력도 없어 화합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陽爻이므로 사악함에 빠지기 않고, 가장 아래에 處하여 위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며, 應하는 세력 없이 때에 따라 순응하면서 화합만을 기쁨으로 여길 뿐이다. 사사롭게 한 쪽에 치우침이 없어 널리 화합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吉한 것이다.⁴⁸⁾ 이 兌卦의 初九爻辭 역시 “寬大和同”의 治道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誠信惠人”의 治道에 관한 언급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小畜卦 九五爻辭인 “믿음이 있어 연결하여 富로써 그 이웃들을 돕는다.”⁴⁹⁾이다. 여기에서 ‘연결

43) 金景芳·呂紹綱著, 《周易全解》(吉林: 吉林大學出版社, 1989) 110-111쪽: 拔茅茹, 說的是物. 用物比喻初九之象. … 初九陽剛居下, 正遇天地交泰之盛時, 它必然要上進. 不但自己上進, 還要連帶九二九三一起上進. 彙, 類. 征, 動. 君子就如同拔茅一樣, 自己上進, 還要引導自己的同類即同志, 一道上進. 這當然是吉的了.

44) 《周易》 同人卦 卦辭: 同人於野, 利涉大川, 利君子貞.

45) 金景芳·呂紹綱著, 《周易全解》(吉林: 吉林大學出版社, 1989) 122쪽: 野字過去多理解爲空曠野地, 其實這是國野之野. 古代在一個國家裡, 中心地區叫做國, 國之外叫做郊, 郊之外便是野. 野是最邊遠的地區. ‘同人於野’是說同人的面要廣大要遠, 要同天下之人.

46) 《周易》 同人卦 六二爻辭: 同人於宗, 吝.

47) 《周易》 兌卦 初九爻辭: 和兌, 吉.

48) 金景芳·呂紹綱著, 《周易全解》(吉林: 吉林大學出版社, 1989) 410쪽: 初九是陽爻, 居說體而處最下, 又无所系應, 是能够以和爲說的, 因爲是陽剛, 所以不邪陷. 因爲處下, 所以无上求之念. 因爲无所系應, 所以隨時處順, 心无所應无所爲, 以和而已. 以和爲說, 无所偏私, 故吉.

함(擘如)’이란 상호간에 결합이 긴밀하고 견고함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믿음이 있어 연결함(有孚擘如)’이란 믿음이 있는 九五爻가 역시 믿음이 있는 六四爻와 관계하면서 呼應이 잘 이루어지고, 상호 신뢰와 정성을 바탕으로 돕고 협력함으로써 그 결합이 긴밀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익괘 구오효사인 “정성으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묻지 않아도 크게吉하며, 정성으로 나의德을 은혜롭게 여길 것이다.”⁵⁰⁾ 역시 “誠信惠人”의 治道를 표명하고 있다. 益卦 九五爻는 陽剛의 기질과 中正의 德을 지니고 존엄한 지위에居하여 역시 中正한 德을 지닌 六二爻와 좋은 호응(正應)의 관계를 맺어 유익함을 베푸니 무엇이 이롭지 않겠는가? 신실한(陽實) 마음을 갖고 있으니 믿음과 정성이 있는 象이다. 九五爻의 德과 재주와 지위를 갖추고 마음에 정성을 다하여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유익하게 한다면 지극히 선하고 크게 길할 것임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묻지 않아도 크게 길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人君이 이룩할 수 있는 지위에 자리하고, 이룩할 수 있는 권세를 잡아, 정성으로 천하 만민에게 유익함을 주고자 한다면 천하 만민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니, 크게 길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정성으로 나의 덕을 은혜롭게 여길 것이다’라는 말은 人君이 至誠으로 천하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려고 한다면 천하 사람들 역시 그를 정성으로 사랑하고 떠받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며, 또한 君主의 德澤을 은혜롭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임을 뜻하는 말이다.⁵¹⁾

“憂患處事”에 관한 언급은 否卦 九五爻辭에서 볼 수 있는 바, “비색함을 그치게 하는지라 大人이 길하니, 그것이 망할까 그것이 망할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뽕나무에 묶어놓듯이 안전하다.”⁵²⁾가 바로 그 내용이다. 여기에서 ‘그치게 함(休)’이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멈추게 함(止息)을 뜻한다. 九四爻

49) 《周易》 小畜卦 九五爻辭：有孚擘如，富以其隣。

50) 《周易》 益卦 九五爻辭：有孚惠心，勿問元吉，有孚，惠我德。

51) 成百曉譯註，《周易傳義》下(서울：傳統文化硏究會，1999) 190-191쪽. 益卦 九五爻辭에 대한 程頤의 注：五剛陽中正居尊位，又得六二之中正相應，以行其益，何所不利。以陽實在中，有孚之象也。以九五之德，之才，之位，而中心至誠，在惠益於物，其至善大吉，不問可知，故云勿問元吉。人君居得致之位，操可致之權，苟至誠益於天下，天下受其大福，其元吉不假言也。有孚惠我德，人君至誠益於天下，天下之人无不至誠愛戴，以君之德澤爲恩惠。

52) 《周易》 否卦 九五爻辭：休否，大人吉，其亡其亡，繫於苞桑。

에서부터 (天地의 交感이) 비색한 국면(否卦)에서 왕성하게 교감하는 국면(泰卦)으로의 전환을 개시하였고, 九五爻는 이미 비색한 국면을 종식시키는 시기에 진입한 것이다. 九五爻는 否卦의 主爻로, 陽剛中正하며, 또한 尊位에 居하고 있으므로 그럴만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럴만한 덕망을 갖추었으며, 때를 얻었기 때문에 능히 비색한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元氣가 점점 회복되어 장차 기운이 창성하게 되는 때에는 사람들 모두 쾌락하고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나 大人은 위태롭게 되거나 멸망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면서 그것이 망하지 않을까 하는 경계의 마음을 항상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것은 마치 뿌리가 무성하고 깊게 뺨은 뽕나무에 단단하게 묶어 놓은 것과 같이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⁵³⁾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易經》에서는 “寬大和同” “誠信惠人” “憂患處事”와 같은 王道理念 또한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하늘의 聰明은 백성들의 聰明을 통해 나타나는(天聰明自我民聰明)” 것이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게 된다는 “民本”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周代의 인문정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4. 나오는 말

고대 중국인들이 神의 의지를 물어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神과의 소통방법으로 널리 수용되었던 卜占과 筮占은 동일한 고대의 占筮영역에 속한 것이지만 사실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상이한 두 종류의 점법이였다. 즉 단순히 龜甲이나 獸骨에 나타난 균열의 象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卜占과는 달리 인류의 생활경험과 지식이 반영된 일련의 運算법칙에 따라

53) 金景芳·呂紹綱著, 《周易全解》(吉林: 吉林大學出版社, 1989) 119쪽: 休, 止息. 九四否開始向泰轉化, 九五已進入息否之時. 九五是否卦之主爻, 陽剛中正且居尊位, 可謂居其位, 有其德, 得其時. 它有條件有力量休否. … 當元氣漸復時, 人皆晏然安樂, 唯大人有戒懼危亡之心, 他念念不忘其亡‘其亡’. 有如此戒懼危亡之心, 必能象繫於苞桑 那樣堅固不拔.

부호체계를 이루고, 그에 의거하여 길흉을 결정하는 筮占은 축적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占의 과정에 적극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卜占보다는 훨씬 진전된 형태의 占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朱伯崑은 “卦爻辭에서 말하고 있는 일들은 대부분 先民들의 생활상의 경험으로 어떻게 吉을 취하고 凶을 피할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로서 先民들의 憂患意識과 삶을 추구했던 지혜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卜筮, 즉 卜法에서 길흉을 단정하는 일은 모두가 上帝의 명령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占에 물었던 일의 前途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 卜法和 筮法은 비록 모두 上古시대의 巫術 가운데 하나이지만 筮法은 기타의 巫術과 비교해 볼 때, 특히 그 사유의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人謀의 성향이 증강되어 있고, 理性主義의 요소도 증대되어 있다. 따라서 《周易》이라는 이 오래된 占筮의 전적이 철학적 이론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전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철학과 중화문화의 원천의 하나가 되었다.”⁵⁴⁾라고 말하였다.

《周易》, 즉 《易經》에 심취하여 韋編三絶의 고사를 남기고 있는 孔子는 《易經》의 해설서인 《易傳》을 남김으로써 《周易》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易經》 속에 담긴 “人謀”의 人文主義 精神은 孔子思想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孔子는 그의 語錄에 해당하는 《論語·述而》에서 “만일 나에게 몇 년의 수명을 더하여 五十이 되어 《易》을 배우게 한다면 큰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⁵⁵⁾라고 말하였다. 이는 《周易》을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사상서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論語·子路》에서 孔子는 “남쪽나라 사람들의 말에 ‘사람이 恒心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원도 될 수 없다.’하니, 좋은 말이다. 또한 ‘그 德을 항상 갖추지 못하면 부끄러운

54) 朱伯崑, <儒家人文主義占筮觀> (《國際易學研究》第三輯, 1997. 8) 5쪽 : 卦爻辭所言之事, 多爲先民的生活經驗, 教人如何趨吉避凶, 體現了先民的憂患意識和求生的智慧, 而卜辭即卜法斷定吉凶之事, 皆歸於上帝의 命令, 對所問之事의 前途, 無選擇의 餘地. … 卜法和 筮法雖同爲上古巫術之一, 但 筮法同其它巫術相比, 就其思維內容來說, 人謀의 成分增強, 理性主義因素增長, 從而爲『周易』這部古老的占書典籍向哲理化轉化提供了前提, 成爲中國哲學和中華文化的源頭之一.

55) 《論語·述而》: 子曰 加我數年, 五十以學易, 可以无咎矣.(楊伯峻 譯注, 《論語譯注》, 71 쪽 참조.)

일이 혹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사람은 점칠 필요도 없다."⁵⁶⁾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周易》의 恒卦 九三爻辭인 "그 德을 항상 갖추지 않으니, 부끄러운 일이 혹 이르게 될 것이다."는 내용과 동일하다. 孔子의 人文主義 思想이 《周易》의 思想과 얼마나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孔子는 제자 季路가 鬼神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묻자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귀신을 잘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하였고, 또한 季路가 '죽음에 대해 감히 묻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자, '삶에 대해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 알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⁵⁷⁾ 그리고 제자인 樊遲가 지혜에 대해 묻자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힘쓰며, 鬼神을 공경하되 멀리하면 지혜롭다고 할 것이다."⁵⁸⁾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孔子의 제자인 子夏는 "내(商)가 들으니 '死와 生은 命에 달려있고, 富와 貴는 하늘에 달려있다.'고 말하였다."⁵⁹⁾ 이상의 대화 내용을 통해 공자의 生死 및 귀신에 대한 이해와 삶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엿볼 수 있다. 즉 生死의 문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벗어나 天命에 달려있는 만큼 現實의 삶의 領域에 관한 論議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鬼神의 존재에 대해서도 恭敬은 하되 이를 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鬼神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삶의 합리적 논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 것이다. 사실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의 주된 관심사는 實存의 삶의 당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이지 출생 이전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처럼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추상적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易經》의 卦爻辭에서도 인간의 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는 神의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天帝와 鬼神에게 도움을 청하는 "鬼謀"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盡人事한

56) 《論語·子路》：子曰 南人有言曰'人而無恒，不可以作巫醫。'善夫！'不恒其德，或承之羞。'子曰 '不占而已矣。'(楊伯峻 譯注，《論語譯注》，141쪽 참조.)

57) 《論語·先進》：季路問事鬼神。子曰 未能事人，焉能事鬼。曰 敢問死。曰 未知生，焉知死。(楊伯峻 譯注，《論語譯注》，113쪽 참조.)

58) 《論語·雍也》：樊遲問知。子曰 務民之義，敬鬼神而遠之，可謂知矣。(楊伯峻 譯注，《論語譯注》，61쪽 참조.)

59) 《論語·顏淵》：子夏曰 商聞之矣。死生有命，富貴在天。(楊伯峻 譯注，《論語譯注》，125쪽 참조.)

뒤 待天命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실존적 삶의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卦爻辭의 대부분 역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당면 難題를 해결하려는 “人謀”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易經》은 비록 하나의 古老한 卜筮의 전적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담긴 많은 理性的 사유와 생활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중국철학의 중요한 사상적 원천이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易經》의 卦爻辭에는 殷商시대의 영향으로 이전의 전통적 신앙의식이 “鬼謀”의 형태로 일부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周代의 새로운 思潮인 “人謀”의 人文精神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로써 현실적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易經》의 人文精神이 中國哲學, 특히 中國 儒家哲學 및 中國文化의 人文主義 建立에 큰 貢獻을 하게 된 것이다.

< 參考文獻 >

- 十三經注疏 6 《左傳》，臺北：藝文印書館印行。
 十三經注疏 3 《周禮》，臺北：藝文印書館印行。
 十三經注疏 1 《尚書》，臺北：藝文印書館印行。
 十三經注疏 2 《詩經》，臺北：藝文印書館印行。
 十三經注疏 1 《周易》，臺北：藝文印書館印行。
 十三經注疏 5 《禮記》，臺北：藝文印書館印行。
 漢·許慎，清·段玉裁 撰，《說文解字注》，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民國 72。
 王夢鷗 註譯，《禮記今註今譯》，臺北：臺灣 商務印書館，民國 73。
 傅隸朴，《周易理解》，成都：巴蜀書社，1991。
 成百曉譯註，《周易傳義》上下，서울：傳統文化研究會，1999。
 金景芳 呂紹綱著，《周易全解》，吉林：吉林大學出版社，1989。
 楊伯峻 譯注，《論語譯注》，北京：中華書局，1980。
 朱伯崑主編，《國際易學研究》第三輯，北京：華夏出版社，1997。

韓國周易學會 編, 《周易의 現代的 照明》, 서울 : (株)汎洋社出版部, 1992.

한국주역학회 편, 《주역의 근본원리》,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4.

<中文提要>

在古代, 受人類經驗和知識水平所限, 如遇到難事, 人們寄希望於神靈, 希願依靠其力量來解決這些難題。他們嘗試各種方法, 試圖與神溝通而獲知神靈的意志, 在衆多占卜法中, 卜筮之占法的出現, 受到衆人的推崇, 得以流行。卜筮可以說是與神溝通的手段, 也是上古人類解決所面臨難題的智慧。卜筮是古代社會長期普遍流行之占法, 而事實上, 卜和筮在其形式和內容上是完全不同的兩種占法。卜法系將龜甲獸骨燒灼察看其裂紋(象)而判斷其吉凶之占法, 筮法系將著按一定的規則進行運算(數)而判斷其吉凶之占法。

周代占卜是對殷商占卜的繼承, 《易經》作為周人占筮用的典籍受殷代影響, 《易經》卦爻辭中保存有有關“鬼謀”的天帝崇拜和鬼神尊奉的傳統信仰。但《易經》的卦爻辭中涉及“勤勉”, “敬懼”, “謹慎”, “謙卑”, “節制”, “恒德”之德的內容更多。《易經》還強調“寬大和同”, “誠信惠人”, “憂患處事”的王道之義。卜法和筮法雖同為上古巫術之一, 但筮法同其它巫術相比, 就其思維內容來說, 人謀的成分增強, 理性主義因素增長, 從而為《周易》這部古老的占書典籍向哲理化轉化提供了前提, 成為中國哲學和中華文化的源頭之一。《易經》雖然是一部卜筮之書, 但是由於其中包含有大量理性思維內容和生活智慧等, 因而成為中國哲學的一個重要思想來源。根據以上論述, 可見《易經》一方面繼承了殷商卜法之“鬼謀”傳統信仰, 同時更重視周代思潮“人謀”的人文精神。這為中國哲學和中華文化之人文精神建立作出了偉大貢獻。

關鍵詞 : 卜筮, 鬼謀, 人謀, 德性, 人文主義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1.10.10	2011.11.7	2011.11.17	2011.11.23	2011.11.30